

중앙일보

이언주 "상식 지식인" 칭찬에..."정치 좀비"로 되받아 친 진중권

기사입력 2020-01-07 08:47 최종수정 2020-01-07 10:18



이언주 무소속 의원,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. [중앙포토]
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"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"이라고 칭찬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게 화답하는 대신 독설을 퍼부었다.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을 "영혼 없는 정치좀비", "참 나쁜 정치인"이라고 불렀다.

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페이스북 친구의 댓글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.

그는 "이언주 의원 칭찬 감사합니다"라면서 "제가 진영을 떠나 옳은 얘기 하려 한 점을 높이 사준 것 같다"고 평가했다. 그러면서 이 의원을 힐난하기 시작했다.

진 전 교수는 "외람된 말씀이지만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언주 의원님은 참 나쁜 정치인"이라면서 "민주당-국민의당-바른미래당 거쳐 자유한국당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다"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"영혼 없는 정치좀비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"며 "그것이 이 나라 정치발전의 길

이자,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"이라고 비난했다.

앞서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진중권에게 배신자 운운하지만 나는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"며 진 전 교수를 응원했다.



Jungkwon Chin 이연주 의원, 칭찬 감사합니다. 제가 진영을 떠나서 옳은 얘기 하려 한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. 답례를 해드려야죠. 외람된 말씀이지만,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, 이연주 의원님은 참 나쁜 정치인입니다. 민주당-국민의당-바른미래당-거쳐 자유한국당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은데.... 영혼 없는 정치좀비는 정계를 떠나야죠. 그것이 이 나라 정치발전의 길이자,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라 생각합니다.

좋아요 · 답글 달기 · 19시간



[사진 뉴스1]

이 의원은 "저는 진중권 교수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평소에 그리 좋아하진 않았습니 다만 한마디 한마디 참으로 공감 가는 말을 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다"고 호평했다. 이어 "그분에게 비난 댓글을 퍼붓는 민주당 세력들과 그분을 동정하는 보수 세력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으로 진영논리, 패싸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"고 말했다.

최근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연일 진보진영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. 특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.

진 전 교수는 자신을 "'입진보'에서 '입보수'로 변신,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"고 비난한 이종걸 의원에 대해 "진흙탕 싸움에 응하지 않겠다"면서도 2012년 이종걸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표를 흔든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응수했다.

그러자 이 의원은 5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문재인 당대표와 '친문 그룹'과 대립, 원내대표 때 당무거부를 한 적도 있지만 그 후 여러 번 사과했다"면서 "'갈등'의 가장 큰 요인은 정세 판단과 문재인 대표의 19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였다"고 해명했다.

이 의원은 “진 선생의 글에는 저와 문 대통령 지지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”면서 “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20대 총선의 승기를 잡은 것 등 여러 일로 꾸준히 ‘까방권’(까임 방지권)을 받았다. 저에 대한 비토가 진 선생의 이간질이 통할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진 전 교수는 6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의원님은 (친문) 본진이 아니시니 정신 사납게 만들지 말고 옆으로 좀 빠져라”며 “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실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”고 맞받았다.

배재성 기자 hongdoya@joongang.co.kr

- ▶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? 먼저알지!
- ▶ 중앙일보 '홈페이지' / '페이스북' 친구추가

©중앙일보(<https://joongang.co.kr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5&aid=0002965881>
